

그의 건축은 향기가 있고 빛이 있다

Hoyoojae, House with Fragrant 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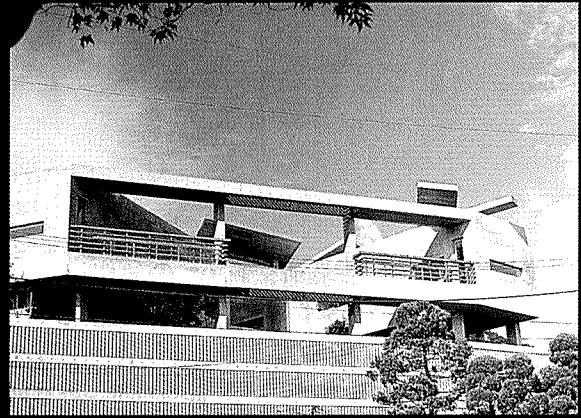
박민철 / 간향건축 소장
by Park Min-Cheol

편안히 앉은 소파위 나의 시선에는 소박한 마당이 보이고 연못의 물소리는 잔잔히 울려온다.

이것은 강한 건축의 채움과 비움을 만드는 건축가 김호만의 건축작법에서 보기 힘든 역설적인 고요함이다.

평창동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보면 이곳 저곳 주택들이 열악한 경사를 이용해 다양한 조형을 가진 모습에 오�히려 재미있기까지 하다. 건축가라면 오�히려 이런 조건들이 자기 건축을 드러내기 좋기에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호유재도 어느 지형보다 가파른 옹벽을 가진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마치 철옹성같은 콘크리트 직벽이 주택의 후레임과 연결되어 하나의 주택 파사드로서는



거대해 보이기도 하고, 가뜩이나 조형적 선이 굵은 건축가로 알려진 이미지로 보아서도 너무 직설적이고 무겁게 느껴진다. 단순히 마당을 들어올린 기단의 느낌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드러냄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대문이 있는 작은 골목에 들어서면 그 첫 이미지는 정겨운 스케일로 변하고 만다.

벌써 초입부터 범상하지 않은 이 주택 작품을 비평하기에 앞서 우선 주택이라는 대상에 대한 비평이 두가지의 어려움을 가진다. 첫째는 건축가의 의도보다 주택은 사는 이의 의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둘째는 사는이의 의도보다 삶이라는 근본적 원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건축가가 그려내는 삶의 그릇은 어찌하여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과 새로운 것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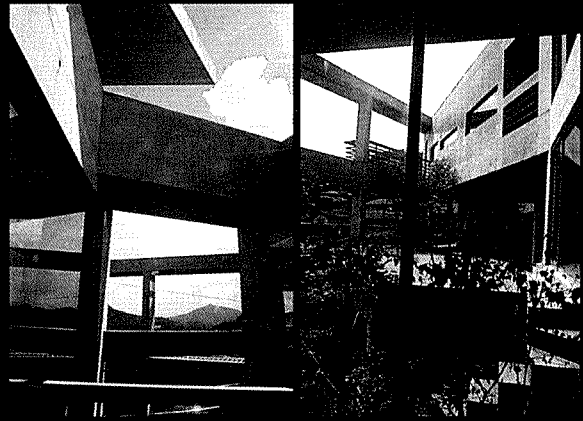




로 제시해도 그것은 오랜 생활 습관에 익숙한 사는 사람의 삶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평적 관점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평가와 해석은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건축가의 태도와 그가 추구한 건축의 심상이 우리에게 어떤 감흥을 주는가가 사실 더욱 관심거리가 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축가 김호만의 지속적인 주택작품의 특성과 일관성을 보면서도 더욱 중요한 의미는 한국 건축 기성세대의 든든한 건축근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비평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호유재는 세가지의 향기를 느낀다. 하나는 김호만의 집요한 마당을 주제로한 바라봄과 뚫림,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공간의 구성이고, 둘째는 건축주의 남다른



애정이 만든 건축의 애뜻한 짜임새이며, 셋째는 시공자의 콘크리트 건축기법의 안목과 질이 향기로 다가온다. 한마디로 건축주가 심지가 되었고, 김호만은 색깔 있는 초가 되었다면, 시공자는 유리 그릇이 된 셈이다.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향기를 가진 호유재는 그 깊이를 가진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건축가 김호만의 주택 작품은 도시속에서 숨쉬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마당을 그 핵심요소로 집요하게 고집한다. 공간의 구심점이 거실이나 안방이 되기보다는 외부공간의 마당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호유재 뿐만 아니라 임거당과 상선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그의 건축적 첫 궤임은 바로 마당이 그 구심적 공간의 축이 됨이 분명하다. 그런데 호유재의





마당은 임거당의 마당과는 다르다. 위에서 바라보는 마당이 아닌 거실에서 연속된 수평적 마당이다. 그래서인지 호유재의 마당은 본연의 마당 느낌이 더욱 살아있고, 더욱 인간적이다.

오히려 김호만은 마당이 이루어내는 하늘의 열림에 관심이 더욱 많은 듯 하다.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관통, 뚫림이 주는 열림의 풍경, 즉 자유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그의 자유는 분명 우리의 도시적 생활에서 닫혀진 일상에서 탈피하려는 갈구의 의미를 은유하고 있는 듯 하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건축해법은 지극히 극단적이다. 왜냐하면 강한 콘크리트 후레임으로 담아놓고, 다시 하늘을 열어줌으로써 생기는 자유라면 진정한 자유라기 보다는 작위적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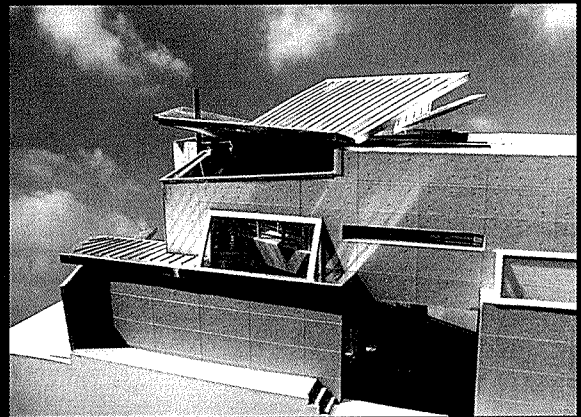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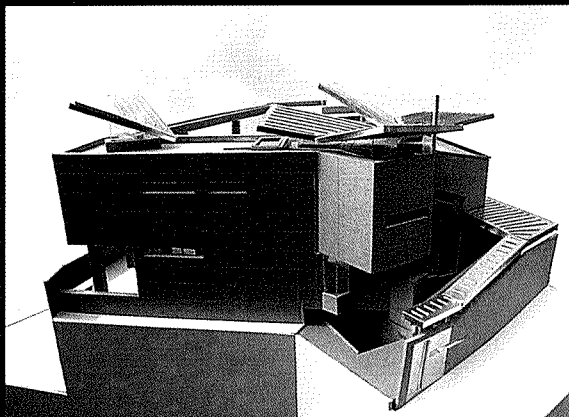
사실 호유재의 낮은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가 계단을 오르면 펼쳐지는 작은 정원, 그리고 정자,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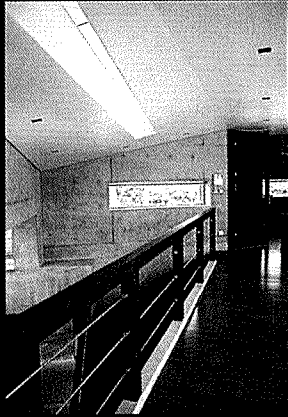


의 공간구성이 오히려 전통적인 인간적 자유를 느끼게 하는 요소일 수 있다. 하여간 마당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부유하고 위를 향하는 비상하는 건축이라는 표현은 그 육중한 콘크리트 물성과 굵은 건축선들 속에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특히 지붕위에 얹은 나비의 날개는 날개라기 보다 덮개로 느껴진다.

또한 호유재에서 특이한 공간구성은 에워쌈이다. 남쪽의 탁트인 전망과 빛을 김호만은 길게 뻗은 발코니를 마치 연결 브릿지처럼 후레임으로 짜서 그만의 특이한 한 몸뚱아리를 고집하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과 도시의 빛을 구별하고자 함이고, 다이내믹한 발코니의 풍광을 의도한 것이라면 주택에서는 과감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 에워싸임은 삼각형 대지에서 외부공간의 마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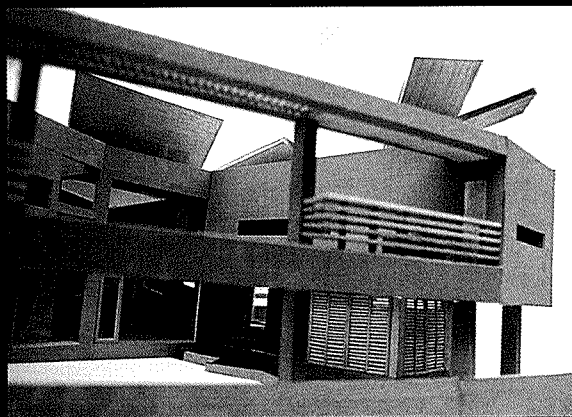




형성하고 입체적인 매스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내부공간에서는 너무 과다한 빛과 창의 노출이 불가피하게된 원인이 되었다.

특히 거실에서의 거대한 창은 요목조목한 그동안의 전통적이라는 공간의 구성과 맛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말았다. 과다한 열림 때문에 말하자면 밖도 열리고 안도 열려버린 셈이다.

하여간 열림과 뚫림이라는 전통과 현대적 의미는 어떤시각으로 연출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이 주택에서 혼재되어 쓰이고 있음이 한쪽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공간마다 천정에 뚫린 작은 창을 통해 빛이 간접적으로 인입되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건축가 김호만의 빛에 대한 정적인 정서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땅을 자연으로 보고 건축을 채움과 비움으로 하여 도시속에서 회화적 풍광과 삶의 활력소로 전환하려는 건축가 김호만의 건축세계는 당당히 입체적이면서 한국건축속의 숨겨진 한국성을 찾는 실마리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건축에는 향기가 있고 빛이 있다. ㄷ

